

통일 칼럼

핵추진 잠수함과 향후 한반도 운명

한 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SSN) 확보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핀에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마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수함 확보가 미뤄지는 사이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하는 등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러 밀착 속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까지도 추정되는 상황이다.

핵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정복규
논설위원

동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하에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한국은 잠수함을 2여척 가지고 있는데 모두 디젤 엔진이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우라늄 235) 등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승조원의 체력과 정신력만 허용한다면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 발각 위험이 낮다.

작전 범위도 넓은데다 최대 속도도 시속 46km로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속도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도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하다.

북한 해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핵미사일 기지도 감시할 수 있다. 핵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작날 가능성이 작고 작전 한 번만 성공해도 항구 전체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을 갖췄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국이기에 수월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으리란 낙관은 삼가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 핵잠수함 확산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만 건조

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 경제의 일환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이 대중경제에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 주문할 수도 있다.

현재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군이 대중경제에 활용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중 갈등에 깊이 개입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을 빌미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 전받아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한국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한을 빌미로 일본이, 또 이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를 빌미로 미국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핵잠수함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안보 비용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 위협이 커지게 된다.

독자재언

연말연시 지나친 음주, 범죄의 표적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면서 과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밤늦은 시간에 중화산동 관내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다 보면 술에 만취해 아무 곳이나 쓰러져 자고 있는 노상 주취자를 종종 보게 된다.

노상 주취자는 인명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주취자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강·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차가운 바람 공기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심각성을 일깨운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몸을 떨면서 푸르린 채 잠들어 있는 주취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주취자들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핸드폰이 있는지 더듬어 보아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타인의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무방비상태

로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취자 가족의 역할도 받아들이기가 거북할 때가 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겨우 신원을 확인해 순찰자에게 태워 거주지로 데려갔는데 주취자와 그 가족들이 도리어 신분증이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목설까지 해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메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연말연시 아무 대책 없이 지나치게 마신 술에 취해 추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분의 아니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연시는 가급적 과음을 자제해 범죄에 노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취자 이송과 관련해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진재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캄보디아-태국 외교 수장과 나란히 선 왕이 외교부장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29일(현지 시간) 중국 윈난성 위시에서 백악 소련(왼쪽)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시하삭 푸양갯개우 태국 외교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해법 못찾는 종광대

전주시 재정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종광대 보상 문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보상 시한은 다가오는데, 전주시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전주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전주시는 종광대 후백제 유적 보존과 재개발 조합원 보상 등을 위해 내년에 450억을 투입하는 등 2년 동안 총 1095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보존 결정 당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진행하겠다고 공언과는 한참 달라진 계획이다. 전주시는 전역대 보상금을 100%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건 문서상의 계획일

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광대 보상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는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다. 도비의 경우 10억 원이 수정 예산에 반영됐지만, 보상에 필요한 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조합원들이 수백억대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담당하는 전주시의회는 막대한 시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이 종광대 유적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최종 고시할지도 향후 쟁점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보존 계획과 보상 재원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조건부'로 보존조치 결정을 내렸다. '유산 보존'은 전역대 보상금을 100%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건 문서상의 계획일

제11회 원화회전

제11회 원화회전(元和會展)이 2025년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미러네일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모두 31명이다. 회원들은 겨울 빛이 깊어지는 12월, 2025년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필력과 예술적 세계를 펼쳐 보이는 제11회 원화회전에 애호가들을 초대했다.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는 청담 강태철, 김경옥, 수정 김민경, 소원 김인숙, 우봉 김중환, 세립 박새롬, 화은 식은영, 운산 손준배, 송정숙, 죽현 신경희, 소왕 양준철, 해담 유주영, 예당 윤길현, 필로 윤화상, 실지 이은실, 진안 임병영, 전유아, 취원 주명숙, 이정 최혜순, 조여 김미숙, 금선 김미진, 한말 김순갑, 형술 김스미, 경산 김효정, 원안 오광석, 난정 윤현경, 임귀용, 덕송 임한태, 무진 정현석, 그리고

지도교수 월산 김문철 작가다. 원화회는 유일하게 산수화의 깊이와 문인화의 멋이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산수화와 문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더하고 먹빛의 원기와 여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울림을 전하고자 했다.

월산 김문철 지도교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 한국화를 전공 졸업했다. 개인전 10회, 초대·단체전에 다수 출품했다. 현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문철 지도교수는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 '귀소·화선지에 수묵'을 출품했다. 변함없는 열정과 세심한 지도,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 준 김문철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